



|              |   |
|--------------|---|
| 제목           | Constantine, Divine Emperor of the Christian Golden Age |
| 발행언어         | 영어  |
| 발행처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 발행일          | 2011. 10. 31.   |
| 저자           | Jonathan Bardill  |
| 출판도시         | Cambridge   |
| 페이지수         | 440   |
| ISBN 또는 ISSN | 978-0521764230  |

내용 요약

이 책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왕국과 기독교 성장에 그가 기여한 바를 연구한 책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문학, 예술, 건축 등을 통해 나타난 황제의 이미지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제국의 종교 전통과 유일신 신앙을 결합시킨 방법을 연구하여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인적 신앙의 모호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신선한 논의를 보여준다. 저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인적 신앙을 나타내는 물질적 자료와 문서 자료를 소개하고 고찰한다. 저자는 콘스탄티누스가 세운 교회들과 교회를 위한 기부를 가장 중요한 물질적 자료라고 본다. 특히 예루살렘의 ‘거룩한 무덤 교회’는 오늘날까지도 모든 기독교인의 성지이며, 콘스탄티누스의 개인적 신앙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한다. 저자는 콘스탄티누스의 신앙을 입증하는 두 가지 중요한 문서 증거를 소개한다. 첫 번째 증거는 박해 중지, 예배의 자유 도입, 그리고 몰수한 재산의 환수이다. 두 번째 증거는 325년에 개최된 니케아 공의회이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의 분열을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인식했기에 기독교의 연합을 위해 중재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 저자는 고대 황제들의 초상화를 비교 연구하고 동방왕국 스타일의 왕관을 쓴 콘스탄티누스를 조명한다. 2장과 3장에서는 방사선 모양의 왕관을 쓴 황제의 동상과 이미지를 연구하고, 구원자로서의 왕 인식에 대해 논의한다. 4장~6장에서는 콘스탄티누스 금박 동상의 히포드롬 행렬을 통해 드러나는 혼합된 이미지를 연구하고, 콘스탄티누스를 구원의 표징으로 인식하는 논쟁적인 주장을 논의하며, 로마에 세워진 거대한 콘스탄티누스 동상의 의미를 고찰한다. 7장~9장에서는 콘스탄티누스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